



바질



스테비아



명월초



래디쉬



강낭콩

그림 3-2. 가해학생 학교텃밭 활용작물

(2) 피해학생

피해학생 학교텃밭 프로그램은 **회복탄력성 증진**을 목적으로 개발됨. 활용 작물은 학생들의 선호도에 기반하여 약초(명월초, 삼채, 차즈기), 채소(배추, 쪽파, 래디쉬(20일무)), 땅콩, 초화류(메리골드), 허브(바질, 스테비아, 애플민트, 로즈마리)를 사용함. 작물은 물관리가 쉬워야 하며, 생육이 빠른 작물의 선택을 통해 가꾸는 과정이 지속적이면서 수확을 통해 성취감을 줄 수 있도록 함. 그중에서 래디쉬는 ‘20일무’라는 별명처럼 30일 전후로 수확이 가능하며, 텃밭 재배 초보자가 수확의 즐거움을 맛보기에 알맞은 채소, 텃밭활동으로는 참여자의 프로그램 요구조사 결과 요리하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기 때문에 차조기 젤라또 만들기, 바질페스토 만들기, 주먹밥 만들어 먹기, 강낭콩 요플레 만들기 등의 활동을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구성요소로 활용한 회복탄력성 요인은 내적 보호요인과 외적 보호요인으로 나누어지며, 각 회 차마다 내적 보호요인과 외적 보호요인이 함께 포함되도록 함. 내적 보호요인에는 개인적 요인으로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공감과 수용 등이 있고, 외적 보호요인에는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또래의 친사회적 기대, 가정/학교/지역사회 돌봄의 관계와 기대 등이 포함되어 있다.